

1~2차시	풍류의 멋과 흥	()학년 ()반 이름: ()
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학 습 주 제

자연을 벗 삼은 선비의 시조

1. 시조 '두류산 양단수' 지은이: 남명 조 식

초장: 두류산 양단수를 예전에 듣고 보니,
양단수를 듣고 이제 와 보니,
중장: 도화 쓴 붉은 물에 조촐 잠겼세라.
복숭아 꽃이 뜬 맑은 냇물에 산 그림자마저 잠겨(비쳐) 있구나
종장: 무릉이 어딤오, 나는 헝노라.
아이야, 무릉도원이 어디냐?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.



2. 작가 탐구: 남명 조 식 (1501~1572)

조식은 경남 합천 출생으로 누구보다 학문에 정진하고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나, 남명은 책에서만 길을 찾은 선비가 아니었다. 그는 늘 몸에 과 을 지니고, 자신을 경계하고 반성하는 등 치열한 자기수양과 실천했다.

을 12번이나 올랐으며, 나이가 들어서는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곳에 집을 짓고 지냈다. 그의 사후 20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, 그의 50여명은 선비지만 으로 전장에서 나라를 구했다.



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자연 속에 은둔하며 학문에 정진하는 이를 라 한다.

3. 시조를 노래한 곡을 , 이를 노래한 전문음악인을 '가객'이라 한다.

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16
⊕		⊕		⊕		⊕		⊕		⊕		⊕		⊕	
					仲	仲	仲			仲	仲	仲	仲	仲	仲
					黃	黃	黃			黃	黃	黃	黃	黃	黃
					두류		사					아			
仲	仲	仲	仲	仲	仲	仲	仲	仲	仲	仲	仲	仲	仲	仲	仲
야		다	아			수			르						